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과부에 대한 규례

[딤후 5:1-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께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교훈하며 권면할 때 예절과 덕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덕스럽고 깨끗하게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사람을 사람다워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비상식적이고 예절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예절 있고 덕스러운 인격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예절 있게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敬待)하라.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가 넘는 과부로서 그를 돌아볼 자녀나 친척이 없고 평소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한 일들을 행한 자를 가리키는 것 같다(9-10절). ‘경대(敬待)한다’는 원어(티마오 τιμάω)는 ‘공경한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물질적 필요를 공급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본문은 교회가 그런 자를 공경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교훈한다(16절).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유세베인 εὐσεβείν) [공경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나 조부모를 공경하며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였다. 효도는 제5계명이 가르친 중요한 덕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보

답이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자녀들은 마땅히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의와 선을 실천해야 한다.

[5-6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들은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종류는 과부가 되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었다. 이런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외롭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이었다. 만일 그가 남편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과부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육신의 쾌락을 구하며 사는 자’이다. 그의 처지는 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남편이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게 할 뿐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최선용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영적 생명, 곧 구원 얻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이다.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위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된다. 구원 얻은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세상의 헛된 쾌락을 구하며 살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 자들이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만 치우쳐 산다면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무지 모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그런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헛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본질은 신앙과 행위가 분

리될 수 없음을 잘 증거한다.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다. 어떤 자녀나 손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외로운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그런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사람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아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런 인간 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9-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초대교회는 구제해야 할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적어도 세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다. 첫째로,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였다. 60세라는 나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또 재혼할 만한 나이도 지났음을 가리킨 것 같다. 둘째로,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이어야 했다.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이지 않게 이혼하고 재혼한 자를 제외하는 말일 것이다. 60세가 되기까지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라면 그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이었을 것이다. 셋째로,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이어야 했다. 본문은 선한 행실들의 예로 자녀들을 양육한 일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이나 성도들의 발을 씻긴 것, 즉 섬기는 일이나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한 일 등을 들었다.

[11-15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꾀문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결혼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배반한다’는 원어

(카타스트레니아오 καταστρηιάω)는 ‘음탕하게 된다, 정욕적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보인다.

그런 자들은 처음 믿음, 곧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첫 신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며 헤서는 안 될,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한다. 이런 자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이다. 참으로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하게 살 수 없다. 세상적으로 정욕적이고 음란한 자는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또 참으로 구원 얻은 자는 말에 덕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재혼할 수 있으면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돌보고 대적에게 휘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욕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된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별로 인한 재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당한 일이다. 성도는 정욕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재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데도 스스로 독신(獨身)을 서약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다. 결혼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좋다.

15절에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원어(엑세트라페산 오피소 투 사타나 ἐξετράπησαν ὀπίσω τοῦ Σατανᾶ)는 ‘사탄을 따라 치우쳤다’는 뜻이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자는 사탄뿐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혹 사탄의 시험을 잠시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코 사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 자기 품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탄을 따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며 진리의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다. 사도 시대에도 가룟 유다처럼 이미 사탄을 따라 바른 길에서 치우쳐 나간 자들이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믿는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그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 곧 아무에게서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등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1-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다.

둘째로, 교회는 참 과부들을 공경해야 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敬待)하라.” 참 과부는 나이가 60세가 넘은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이어야 했다(9-10절). 교회는 참 과부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야 했다(16절).

셋째로, 젊은 과부는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정욕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11-15절). 성도는 처음 믿은 대로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육신적 쾌락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정욕적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베드로전서 4: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넷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공경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

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6절,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주일오후설교

언약서

[출 24:1-3]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판단들]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와 함께 시나이산에 올라와 아마 산 중턱에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은 산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판단들]를 백성에게 고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의와 불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대답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부패성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 대답대로 실천치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한다. 성도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죄악된 욕구와 행실을 죽일 수 있고(롬 8:13; 갈 5:16)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4-8절]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그들이 번제를 드리게 했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했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고고학은 모세 시대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서 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뜻이 있고, 화목제는 속죄와 교제의 뜻이 있다고 본다. 모세는

피를 취해 받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받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했다. 모세는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하였다.

[9-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다.

[12-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서는 때때로 구름과 함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출애굽기 16:10, “아론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40:34, “[성막 건립 후]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민수기 16: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산 위에 구름 속으로 올라갔고 40일을 밤낮 거기에 있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보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들과 판단들을 백성에게 고하였고 그것들을 책에 기록했고 그것은 언약서라고 불리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의 참 가치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천천금보다 가치가 있다(시 119:72).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힘써 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갈 5:16).

셋째로,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의 피의 절반을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의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불렀다. 언약의 피는 속죄의 뜻이 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이다.

수요일 설교

하나님의 오심

[사 40:1-1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의 삶은 헛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의 모든 삶과 그 영광은 과연 헛되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믿고 소망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적 구주께서 오셨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대요 1:1, 14).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썼다(딤후 1:15). 그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분이시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마태복음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죽되라].”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또 널리 전해야 한다(마 28:19, 막 16:15, 행 1:8).

셋째로, 우리는 신적 구주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한다. 신적 구주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마지막 날에 공의로 보우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대요 10:27).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계 14:3-5). 우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므로 오직 신구약성경의 교훈대로만 믿고 살아야 한다.